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부산의 일상을 바꿔 나가는

부산시민에게 물어보다!



부산시민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100년의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있는 금강공원 숲길 이름을 지어주세요!

어른들에게 추억이 있는, 젊은 세대에게 새로움이 가득할 금강공원에서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공원 숲길 이름을 공모합니다.

부산의 교통, 상가, 공원, 장사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부산시설공단 해방 후 첫 번째 근린공원, 국내 두 번째 케이블카의 역사를 가진 금강공원 내 숲길 명칭을 공모합니다.

금강공원의 이름은 산세의 수려함으로 작은 금강산 같다하여 '소(小)금강'이라 부르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금강원 명명, 1940년). 과거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본인의 개인정원이 되기도 한 아픈 역사가 있지만, 해방 후 첫 번째 근린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오랫동안 이어진 아름다운 자연생태가 있습니다.

선정된 명칭은 해당 숲길에 대한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시설물과 행사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민 의견 분석 결과는?

총 277건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주요 접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결과: 총 277건 접수(중복 명칭 포함, 불성실 응답 1건 제외)
- 주요 접수결과

관련요소	접수명칭
공 원 명	금강벗길, 금강숲길, 금강힐링숲길, 금길숲길, 금빛숲길, 금화자연숲길 등
도 록 농	금빛생태숲길, 도롱숲길, 도롱숲길, 되롱솔숲길, 소롱숲길, 송농숲길 등
바 위	너비바위숲길, 사철암숲길, 석송이음숲길, 솔바위숲길, 큰바위숲길 등
소 나 무	금강소나무둘레길, 금강솔내음둘레길, 금강솔숲길, 금강송지숲길, 금강수림숲길, 금솔숲길, 늘청숲길, 솔내음길, 솔버덩숲길, 솔바람숲길, 소나무아름숲길 등
역 사	100년숲길, 기억의숲길, 동래금강백년숲길, 백금길, 소금숲길 등
기 타	금강백년지길, 가람숲길, 고을숲길, 공감숲길, 그리메숲길, 별뿔숲길, 솔레숲길, 아름드리숲길, 아름솔숲길, 아리숲길, 어울림숲길, 여지래숲길, 장수숲길 등

다음 기준에 따라 명칭을 선정했습니다.

평가기준	설 명
상징성	• 공원 숲길의 상징성 및 특징을 대표하는 정도
대중성	• 쉽게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도, 기억 및 발음 용이성
창의성	• 표현의 참신성, 다른 명칭과 차별성(상표권, 저작권 등에 저촉되지 않을 것)
지속성	•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명칭이 아니고 지속적인지

선정결과: 금강송지숲길(송지숲길)

선정된 명칭은 해당 숲길에 대한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시설물과 행사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